

##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대폭 강화!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2026년 예산 30% 증액 편성 -
- 고환율·고관세 등 무역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4.(목) 16시 K-바이오 강소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주)(충청북도 청주시)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2026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글로벌 지식재산(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예산 : (’ 25년) 120억원 → (’ 26년 예산안) 155억원(+35억원)

이번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과 진입장벽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해외권리화, 특허·브랜드 전략 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평균 4.3% 증가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성과도 다수 나타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공정·품질·물류 전 단계에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인 혁신기업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통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22년(지원 전) 대비 ’24년 매출액이 약 568% 증가하고 약 9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현실의 사물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글로벌 IP스타기업 현장방문 계획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담당자	사무관	백성진 (042-481-5861)

□ **방문 개요**

- **(일시)** '25. 9. 4(목) 16:00~17:30
- **(장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지스(주)\* 제1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7)
-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세포 배양 조건을 효율적으로 예측·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업
- **(주요내용)** ①기업 소개 및 기술·생산과정 시연, ②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지역산업재산과장
- **(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지역지식재산실장
-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지스(주) 대표이사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b>간담회 및 공장 방문</b>	16:00~16:05('5)	간담회장 이동	
	16:05~16:15('10)	기업소개	대표이사
	16:15~17:05('50)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간담회장
	17:05~17:30('25)	연구개발실 및 공장 방문	
	17:30~	마무리 및 환송	